

중소기업 발목잡는 규제 개선해야

진우SMC “지게차 개발해도 상용화 못 해” 전북도, 기업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전북도는 익산시와 함께 18일 기업 규제 애로현장인 (주)진우SMC(익산시 소재)를 방문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부서와 관련부서(산업진흥과)와 협의하여 익산시와 함께 기업 현장을 찾았다.

(주)진우SMC(대표 이준호)는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를 개발했음에도 관련법에 기준이 없어 상용

화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고소작업대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득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등록증을 발부받아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지게차 및 텔레스코픽 지게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규격 및 성능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진우SMC가 개발한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는 국내 법령 상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어느 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해당 제품의 인·허가 획득이나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 관련 조항을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등에 포함하는 등 관련법

령을 개정하여 인증기관(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근거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등록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에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생생한 기업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읍무즈만에 건의하여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업 규제애로가 해결되면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도 사용이 가능해져서 현장 접근성 및 물류 이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및 관련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송 지사 민생탐방 ‘바쁘다 바빠’

정읍 생고을시장 방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약속

송하진 도지사는 정읍 생고을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야시장을 찾아 야시장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탐방에 나섰다.

정읍 생고을시장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17시부터 시장내 평화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어 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개그맨 황기순 씨의 진행으로 인기 초청가수의 축하공연, 시장 상인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을 통한 경품행사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이날엔 정읍 생고을 시장의 자랑거리인 '야(野)한 야시장'이 운영되

어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송 지사는 "전국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정읍 생고을시장처럼 도내 전통시장이 각계의 특성을 잘 살려서 침체되었던 전통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나들이 나가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2017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추진하여 특색있는 공연,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도민들께서는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독일호남항우회 회장단 전북 방문 송하진 도지사는 18일 오후 3시 도청 접견실에서 재독 호남항우회 40주년 기념행사 및 향후 독일-전북도 상호 교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문한 독일호남항우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전주시, 허위경력 주간보호센터 폐쇄

직권취소... “신고자체 무효”

전주시가 시설 대표가 경력을 속여 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직권 취소했다.

시는 18일 허위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시설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청문회경검토를 거쳐, 해당시설의 신고 자체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A주간보호센터 대표는 지난달 29일 예정된 청문을 한 차례에 연기한데 이어, 지난 12일 진행된 청문절차에도 불응했다.

이후, 시는 마지막 절차로 A주간보호센터 대표에게 '직권 취소' 결정을 담

은 청문 결과를 통보했으며,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날 최종 검토한 끝에 시설을 취소 처분하고 폐쇄키로 했다.

이는 시설 대표가 허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시는 직권 취소 결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 학부모와의 면담 후 이용자 모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간보호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설치 신고시 신고 서류의 보안을 요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민주시민교육 외부강사 공개모집

도서관위 23일까지 접수

부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민주시민교육 외부강사로 위촉한다.

지원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대학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 경력 이 있거나 현재 강사로서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 외부강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도서관 권위 홍보과 또는 이메일(jelection@ham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이론, 실무 경험이 풍부... 임무 수행 적임자”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사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인선인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 선임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헌법재판과 이론, 실무 경험이 풍부해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으로 현재 파견 근무를 하며 헌재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헌법이론 연구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지난달 1일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48일만이다.

/뉴시스

전북도, 학교 무상급식단가 200원 인상

전북도는 도 교육청과 협의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년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를 200원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는 초등학교 2,400원에서 2,600원으로, 중학교는 3,1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라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개최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2017년 200원에 이어, 2년 연속 200원을 인상함에 따라, 최근 2년간 약 15% 인상을 기록했다.

또한, 무상급식비 일부(100원)는 로컬푸드 가공식품을 구입, 전북도내 학교급식의 지역농식품 사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5억7400만원 이상의 급식 지원예산이 전통방식으로 만든 두부 등 도내산 원재료 가공품 소비에 사용되어 학생 건강과 지역농가 관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급식비 인상으로 양질의 식재료 공급 여건을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내 농가와 연계한 로컬푸드 가공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어 삼락농정의 제값받는 농업 실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농지연금사업 신청 안내

농지연금사업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사업을 말한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농지자산을 유통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신청대상
▲연령: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경력 합산)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지원조건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농지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단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가격 80%인정
▲연금수령방식: 중신형 / 기간형(5년, 10년, 15년)

◇농지연금의 장점
▲평생보장: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담보농지를 직접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
▲재산세 감면: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만 감면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은행부
(063) 580 - 1011-1017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